

‘수비 바탕’ 이정효표 주도권 축구, K리그 홀렸다

광주FC 2023시즌 결산

② 전방 압박으로 질식 수비

K리그1 최소 실점 공동 1위
무실점 경기 리그 최다 16회
“수비 탄탄해야 공격 가능해”



“공격은 관중을 부르고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 (Offense sells tickets, defense wins championship)”. 미식축구의 전설인 고(故) 폴 브라이언트 감독이 남긴 격언이다.

축구계에서는 “공격은 승리를 부르고 수비는 우승을 부른다”고 변형되기도 했는데 올 시즌 창단 후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며 ‘돌풍’을 일으킨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은 실전에 이 격언을 고스란히 적용했다.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 두 가지 지론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는 수비가 탄탄하지 않으면 공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프로 선수라면 어떤 포지션에서든 자신감 있게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광주는 이 지론을 바탕으로 올 시즌 16승 11무 11패(승점 59)로 3위에 오르며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했다. 35실점으로 전북현대와 함께 K리그1 12개 구단 중 가장 적은 득점을 허용했고, 38경기에서 평균 0.92실점을 내줬다. 무실점 경기는 16회로 가장 많았다.

광주가 탄탄한 수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선수가 실전에 투입돼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경쟁 체제가 밑받침됐기 때문이다. 올 시즌 광주의 중앙 수비수로 는 안영규와 티모 레즈세흐트, 아론 칼버, 김승우, 김경재 등이 등록됐는데 두현석과 이민기, 이순민 등이 이 위치에 기용되기도 했다.

측면 수비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문 측면 수비 자원으로는 두현석과 이민기, 이상기, 이요셉이 있었지만 신창무와 하승은, 김한길, 이희균, 이순민, 아론 등이 주포지션을 떠나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골키퍼로는 김경민과 이준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최후방 수비수로서 역할은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격의 시발점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재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 경쟁 체제에서 가장 빛난 선수가 이순민이다. 이순민은 주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중앙 수비수와 좌우 측면 수비수를 오가며 포지션 파괴 축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선발 기용되는 위치가 경기에 따라 변동됐고, 경기 중에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위치가 바뀌었다. 포지션과 공수를 가리지 않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이 감독의 포지션 파괴 축구에서 때로는 최전방 공격 진영까지 올라가 상대의 허를 찔렀다.

티모와 아론, 두현석 등도 힘을 보탰다. 티모는 주로 중앙 수비수로 출전했지



광주FC 토마스와 안영규가 지난 6월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홈경기에서 김인성과 그랜트를 상대로 협력 수비를 펼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만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선보였고, 공격형 미드필더 또는 최전방 공격수의 위치까지 올라가 공격을 전개하거나 직접 마무리했다. 아론과 두현석 역시 중앙과 측면,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는 움직임을 선보였다.

또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수비 역할을 중요시했다. 광주의 축구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

공격수와 미드필더도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면 무조건 수비에 가담해야 하고, 이 역할에는 외인들도 예외가 없었다.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을 탈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광주의 탄탄한 수비가 가장 빛났던 경기는 15라운드 수원FC전(2-0 승)과 33라운드 강원FC전(1-0 승)이었다. 광주는 이 두 경기에서 상대에게 단 한차례의

유효슈팅도 허용하지 않았다. 수원과 강원의 슈팅은 각각 10개였다.

탄탄한 수비를 구축하면서 우승 팀인 울산과 준우승 팀인 포항을 상대로도 까다로운 상대로 거듭났다. 올 시즌 광주는 울산과 2승 2패, 포항과 1승 2무 1패로 백중세를 이뤘다. 강팀들도 버거워하는 적으로 받돋움했다는 의미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리그, 2025년부터 ‘아시아 쿼터’ 사라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8차 이사회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6명 등록
국내 성장 외국 국적 보유자는
신인 등록시 내국인으로 간주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장 완화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서 오는 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가 폐지되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쿼터가 추가된다.

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U-22 의무 출장 제도 일부 완화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안건 의결에 따라 오는 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국적에 무관하게 외국인 선수가 추가로 1명씩 등록·출장할 수 있게 됐다.

K리그1은 구단당 외국인 선수 최대 6명을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K리그2의 경우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외국인 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은 아시아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도 오는 2024-2025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 쿼터 선수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5시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맹 이사회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보유자를 신인 등록 시 내국인으로 간주하는 ‘홈그로운 제도’도 오는 2025시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팀 소속으로 합계 5년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 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 선수 등록할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선수는 국내 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에서는 국내 선수로 인정된다. 제도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구단당 1명의 쿼터가 부여되며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

K리그1의 22세 이하(U-22) 선수 미출장 시 교체 인원수 차감 방식도 일부 완화된다.

올해까지 의무 출장 제도는 △U-22 선수 미출장 시 2명 교체 △U-22 선수 1명 선발 및 미교체 투입 시 3명 교체 △U-22 선수 2명 선발 또는 1명 선발 및 교체 투입 시 5명 교체로 운영됐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 미출장 시 3명 교체 △U-22 선수 1명 선발 및 미교체 투입 시 4명 교체 △U-22 선수 미선

발 및 2명 교체 투입 시 4명 교체 △U-22 선수 2명 선발 또는 1명 선발 및 교체 투입 시 5명 교체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U-22 선수 의무 출장 제도 면제의 단서 규정도 신설됐다. 경고 누적 또는 퇴장, 징계 등으로 출장 정지 상태의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 의무 출장 제도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약천후와 시설 문제 등으로 킥오프에 앞서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30분씩 두 차례까지 킥오프 연기 결정이 가능하며, 프로 선수와 유스 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한규빈 기자

페퍼저축은행, 별들의 잔치 참석자 배출할까

2023-2024 V-리그 올스타전
박정아·야스민·오지영 등 기대
11일까지 온라인 팬 투표 진행



2023-2024 V-리그 올스타전에 나설 선수들을 가리는 온라인 팬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에서는 어떤 별이 빛날지 주목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5일 오후 3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팬 투표를 시작했다.

온라인 팬 투표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선발된 선수들은 내년 1월27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이번 올스타전은 지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K-스타(1·3·5위)와 V-스타(2·4·6·7위)로 나뉘었다. 페퍼저축은행이 속한

V-스타는 남자부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KB손해보험, 삼성화재와 여자부 흥국생명, 정관장, IBK기업은행이 묶였다. K-스타에는 남자부 대한항공, 한국전력, OK금융그룹과 여자부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GS칼텍스가 속했다.

온라인 팬 투표 대상은 2라운드 종료 기준 팀 경기 수의 절반 이상을 3세트 이상 출전한 선수다.

K-스타와 V-스타 남녀 총 28명으로 구



박정아



야스민



오지영

성됐으며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아웃사이드 히터 및 아포짓 스파이커에 박정아와 채선아, 박은서, 이한비, 야스민 베다르트 가니, 미들 블로커에 하혜진과 연제이 필

립스, 세터에 이고은과 박사랑, 리베로에 오지영이 이름을 올렸다.

온라인 팬 투표를 통해 각 팀당 세터 1명과 리베로 1명, 미들 블로커 2명, 아웃사이드 히터 및 아포짓 스파이커에 3명이 선정된다.

KOVO 홈페이지 1계정 당 1일 1회, 동일 구단 선수는 최대 3명까지 투표가능하다.

한규빈 기자